

제 4 교시

심층해설(深層解說)

빠른 정답

1	2	3	4	5
③	②	④	④	⑤
6	7	8	9	10
④	⑤	③	③	②
11	12	13	14	15
②	⑤	③	①	①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②	⑤

1. 이론 윤리학, 메타 윤리학, 실천 윤리학의 개념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가치 함축적 명제를 탐구하는 메타 윤리학.

[제시문 분석] (가)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정립을 강조하는 이론 규범 윤리학, (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는 메타 윤리학, (다)는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 삶에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실천 윤리학이다.

[선지 분석] ① 실천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의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② 이론 규범 윤리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③ 메타 윤리학은 탐구 대상에 가치 함축적 명제를 포함한다. 메타 윤리학의 연구가 가치 함축적인 것은 아니지만, 메타 윤리학은 가치 함축적 명제로 구성된 규범 윤리학을 탐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의 탐구 대상에서 가치 함축적 명제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실천 윤리학은 현실 상황의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⑤ 실천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의 도덕 원리를 현실의 상황에 적용하는 윤리학으로서, 어떤 도덕 이론이 타당한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어떤 도덕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메타 윤리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2. 유교와 도가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기본적인 개념만으로 구성된 문항.

[제시문 분석] (가)는 인간 내면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 (나)는 자연적 순리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면서 세속적 가치 분별을 초월할 것을 강조하는 도가 사상이다.

[선지 분석] ㄱ. 유교 사상에서는 자기 수양을 통해 도덕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ㄴ.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인(仁)은 존비친소(尊卑親疏)를 구별하는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사랑[別愛]이지, 차별 없는 사랑[兼愛]이 아니다.

ㄷ. 도가 사상에서는 도(道)를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이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도가 사상만의 입장이다. 유교 사상에서는 인위적 다스림이 없는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

3. 칸트와 매킨타이어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덕 윤리는 행위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행위자 중심의 강사.

[제시문 분석] 같은 행위의 도덕성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무론 사상이 칸트, 옳은 행위 그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품성을 바탕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덕 윤리 사상이 매킨타이어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는 단지 의무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본다.

② 칸트에 따르면 좋은 결과의 산출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매킨타이어는 일상에서 형성된 도덕적인 습관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는 '행위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행위자 중심'의 윤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행위자의 성품을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이다.

⑤ 매킨타이어가 부정할 진술이다.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단 하나의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으며, 단일한 도덕 원리보다는 행위자의 성품과 상황, 맥락 등을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4. 과학 기술에 대한 요나스와 야스퍼스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야스퍼스도 과학 기술의 활용의 맥락에서는 가치 판단을 한다.

[제시문 분석]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권력이 증대된 만큼 인간의 책임 범위 또한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요나스, 옳은 기술이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가치 중립적 수단일 뿐이라고 보는 야스퍼스이다.

[선지 분석] ① 요나스는 과학 기술 발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인류의 존속에 해가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②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윤리적 책임 범위도 확장된다고 본다.

③ 야스퍼스는 과학 기술의 선악 여부가 인간의 활용 방향과 목적에 달려 있다고 본다.

④ 야스퍼스는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는 인간의 올바른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⑤ 요나스의 입장이 아니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 개발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 5. 동물 실험에 대한 두 입장 비교하기 정답 ⑤

**COMMENT** 기본적인 독해 문항이다.

[제시문 분석] 갑은 동물 복제가 위기 동물 보존 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을은 동물 복제가 오직 동물 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지 분석] ① 토론의 내용과 무관하다.

② 토론의 내용과 무관하다.

③ 갑,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다.

④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

⑤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할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 6. 맹자와 플라톤의 직업관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란?

[제시문 분석] 갑은 대인(大人)이 할 일과 소인(小人)이 할 일을 나누는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맹자, 을은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국가 구성원을 세 계층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는 플라톤이다.

[선지 분석] ① 유교 사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직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맹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교 사상가들의 입장이다.

② 맹자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만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선비의 경우 경제적 안정이 없어도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플라톤은 상위 직분에 종사하는 통치자들이 하위 직분, 곧 생산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에서는 계층 간 역할 교환이 엄격히 금지된다.

④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를 수립할 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을 특히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르게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민 전체를 행복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2022학년도 수능특강 58p)

⑤ 맹자와 플라톤 모두 사회적 분업이 사회 질서 유지의 충분조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 7.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이해하기 정답 ⑤

**COMMENT** 국가 공동체만 선(善)을 추구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No.”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국가를 최상의 선을 추구하는 완전한 공동체로 보면서 인간이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오직 국가 안에서만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선지 분석]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비롯해 모든 공동체는 선(善)을 추구한다고 본다. 그중 최상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국가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2022학년도 수능특

강 89p)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완전한 공동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신의 본성상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인간만이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를 이루길 원한다.”(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2번)

ㄷ.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2022학년도 수능특강 96p)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 중 구성원의 생존 보장이 있다고 본다.

ㄹ.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가 추구하는 선은 시민의 행복이므로, 국가가 추구하는 선과 시민이 추구하는 선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8.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 이론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롤스가 원조에서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 분석] 갑은 원조 의무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는 싱어, 을은 원조 의무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롤스이다.

[선지 분석] ㄱ. 싱어에 따르면 빈곤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원조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생필품을 소비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조 의무가 부과된다고 본다.

ㄴ. 롤스는 원조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ㄷ. 롤스는 원조 대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롤스에 따르면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원조 대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다.

ㄹ. 롤스는 원조의 대상을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본다. 원조 의무의 주체가 모든 빈민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함축한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 주체는 자신에게 과도한 손실의 위협이 없는 한 빈민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조로 인해 자신에게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빈민에 대해 원조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9. 윤리적 소비에 대한 주장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제시문에 충실하면 OK.

[제시문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유행을 따라 빠르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소비 관행인 ‘패스트 패션’을 비판하면서, 환경을 위해 의복을 적게 구매하고 오래 입는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지 분석] ① 강연의 주제와 무관하다.

② 강연자는 옷의 교체 주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강연자는 저렴한 값에 유행을 따라갈 수 있는 합리적 소비보다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강연자는 불필요한 의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강연자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마르크스, 왈처, 롤스의 분배 정의를 비교하기 정답 ②

**COMMENT**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마르크스와 롤스의 생각 체크

[제시문 분석] 값은 자본주의의 발달이 필연적으로 노동 착취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 율은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이 각자 상이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왈처, 병은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한 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롤스이다.

[선지 분석] 가. 마르크스뿐 아니라 롤스도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을 공유의 대상으로 보면서,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 자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롤스는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기본적 권리로 승인하지는 않는다.

나. 왈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각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왈처는 이러한 입장에서 롤스가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한 정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다. 왈처에 따르면 사회 내 기초 교육은 사회적 특수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왈처는 안전과 복지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정치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에 따라, 공직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르.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는 정의의 제2 원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명시해 준다고 본다.

11. 에피쿠로스파와 하이데거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실존주의에 입각한 하이데거의 죽음관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분석] 값은 죽음이 선이나 악이 아니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에피쿠로스, 율은 현존재만이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하이데거이다.

[선지 분석] 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선이나 악이 아니다.

②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이란 원자의 해체라고 본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감각을 소멸시키고, 죽음 이후 인간은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본질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이러한 죽음의 본질을 안다면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된다고 본다.

③ 하이데거는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④ 하이데거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통해 개인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가 볼 때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이다.

⑤ 하이데거가 부정할 진술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직시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죽음을 의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12. 순자와 묵자의 예술관 이해하기 정답 ⑤

**COMMENT** 순자의 도덕주의와 묵자의 비악 사상의 비교

[제시문 분석] 값은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본성을 교화하고 사

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순자, 율은 예술이 백성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보는 묵자이다.

[선지 분석] ① 순자는 음악 문화의 발전이 예(禮)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②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화한다고 본다.

③ 묵자에 따르면 “관리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해진다.”(2022학년도 수능특강 139p)

④ 묵자는 음악이 감상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는 단지 음악이 유용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할 뿐이다.

⑤ 순자와 묵자 모두 음악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음악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순자는 음악이 백성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킴으로써 예에 따른 통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묵자는 음악이 백성의 이익을 해치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음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3. 갈통과 칸트의 평화 이론 비교하기 정답 ③

**COMMENT** 칸트가 말하는 평화 조약과 평화 연맹의 개념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다.

[제시문 분석] 값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 상태를 진정한 평화 상태로 여기면서 평화가 오직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갈통, 율은 공화 정제 국가들의 자발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연맹 없이는 영구 평화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갈통은 평화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평화가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갈통은 평화 개념에 대비되는 폭력의 개념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갈통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③ 칸트는 평화 조약이 당장의 현존하는 전쟁을 확실하게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위한 휴전 조약과 구분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조약이 영구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모든 전쟁의 종식이라는 영구 평화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화 정제 국가들로 구성된 반드시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칸트는 각국이 연방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공화 정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평화 연맹이라는 연방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영구 평화가 성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칸트의 입장에서 평화 연맹 결성은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⑤ 갈통은 국가적 타원에서 정치적 변화를 일으켜 사회 구조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모든 국가가 공화 정제로 전환된 후 평화 연맹을 결성해야만 영구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14. 통일 찬성론의 통일 편익 근거 이해하기 정답 ①

**COMMENT** 제시문만 꼼꼼히 읽으면 된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나’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세계 평화



에의 기여, 그리고 경제적 차원의 기대 이익 등을 근거로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반면 제시문의 ‘어떤 사람’은 각종 갈등 발생 가능성과 통일 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하여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① 제시문의 ‘나’는 통일을 통해 겪게 될 손해보다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통일로 얻어질 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의 ‘어떤 사람’은 통일이 야기할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 때문에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에게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막대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② 제시문의 ‘나’는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사회적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③ 제시문의 ‘나’는 통일로 인해 민족이 겪게 될 손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나’는 그러한 손실보다 통일로 얻어질 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할 뿐이다.

④ 제시문의 ‘어떤 사람’은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통일의 당위성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통일에 반대한다.

⑤ 제시문의 ‘어떤 사람’은 분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통일에 드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통일이 주는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므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5. 칸트, 레건, 레오폴드의 환경 윤리 이론 비교하기 정답 ①

COMMENT 올해 모의평가에서 강조된 칸트와 레오폴드. 두 사상가에 집중하면서 싱어와 레건의 동물 중심주의까지 깊이 있게 공부해 줘야 한다.

[제시문 분석] 값은 자연과 관련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를 주장하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칸트, 올은 삶의 주체인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물 중심주의 사상이 레건, 병은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태 중심주의 사상이 레오폴드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는 인간과 종(種)이 다른 존재, 즉 인간 이외의 존재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삶의 주체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 동물이 인간과 종이 다르더라도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더 나아가 무생물과 생태계 그 자체까지도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ㄴ. 레건과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이다. 레건과 레오폴드 탈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두 사유 능력의 유무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오직 사유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ㄷ. 칸트와 레건,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이다. 칸트와 레건 모두 자연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레오폴드 역시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경제적·심미적·윤리적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칸트는 인간 외 존재는 내재적 가치나 도덕적 권리를 지니지 못하므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다. 레건은 삶의 주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존재, 예를 들어 식물의 내재적 가치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식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레오폴드의 경우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며 그들의 존속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어떤 개체의 존속할 권리가 생태계 전체의 보전과 충돌할 경우 그 개체의 존속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레오폴드가 개체와 생태계 전체의 도덕적 지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체론의 입장에서 개체의 생명보다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16.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주관적 견해는 담론 이전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결과로 극복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담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행위 규범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하버마스이다.

[선지 분석] ① 하버마스는 공정한 담론을 통해 행위 규범의 올바른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담론 절차를 거쳐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된 어떤 규범이 있다면, 이때 이 규범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② 하버마스는 모든 담론 참여자가 부작용을 수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규범, 즉 공론장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규범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규범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 하버마스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올바른 발화 태도가 다른 담론 참여자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④ 하버마스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하버마스는 담론의 결과로 각 개인이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공통적인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17.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 이론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제시문 분석] 값은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나 정부 정책, 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적 행위라고 보는 롤스, 올은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싱어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부 정책, 제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

② 롤스에 따르면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롤스, 『정의론』) 그런데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최종적인 근거를 공유된 정의관으로 본다.

③ 싱어는 부당한 법을 변혁하기 위해 반드시 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부당한 법을 개혁할 수 있으며, 시민 불복종은 이러한 합법

적인 수단들이 선행된 이후에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싱어의 생각이다.

- ④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이므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본다. 이것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싱어는 시민 불복종으로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고 본다.
- ⑤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을 민주적 원칙과 질서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진지하게 항의하는 행위로 본다.(2022학년도 수능완성 해설지 20p)

18. 칸트의 성 윤리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칸트의 성 윤리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결혼 관계에서의 성관계만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관계일 수 있다고 보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가. 칸트는 일정한 계약, 즉 결혼 계약이 맺어진 관계에서만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나. 칸트는 부부 사이에서는 출산을 의도하지 않아도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 칸트는 성관계를 성적 쾌락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칸트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속성들을 순전히 육체적 쾌락에 쓸 권한은 인간에게 없으며, 만약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성을 이용한다면 이는 자신의 인격성을 모욕하는 것이다.(2022학년도 수능완성 해설지 13p)

르. 칸트는 부부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19.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형벌론 비교하기 정답 ②

**COMMENT 칸트에게 수형자는 본보기가 아니다!**

[제시문 분석] 갑은 살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오직 사형뿐이라고 보는 칸트, 을은 살인범이 사회 계약의 위반자로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보는 루소, 병은 사형을 중신 노역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 베카리아이다.

[선지 분석] ① 루소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루소를 비롯한 모든 형벌론 사상가들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다만 어떤 형벌이 특정 범죄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뿐이다.

② 루소는 사형이 사회 방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형벌이라고 본다. 반면 칸트는 사형제에 찬성하면서도 그것이 사회 방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불필요한 형벌이라고 본다.

③ 베카리아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가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에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강도와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칸트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사형제에 찬성하지만, 사형 집행의 근거를 살인범의 동의에서 찾지는 않는다.

⑤ 칸트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에 따르면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로서, 그를 한낱 수단일 뿐인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

20. 정보 사회에 대한 칼럼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⑤

**COMMENT 무난한 독해 문항으로 출제.**

[제시문 분석] 칼럼은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정보의 양이 증가했으나 그 신뢰도 또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 분석] ①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칼럼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 하시오.

## 출제진

혜음 수능윤리 연구소

유삼환(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구은빈(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권소연(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김찬영(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박준태(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 검토진

강수영